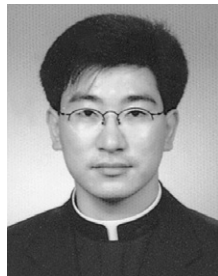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참된 믿음

김충남 실베리오 신부
백천성당 주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어서 빨리 오기를 희망하시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늦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복음을 묵상하면서 문득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모욕과 멸시, 고통과 상처,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얻고 계십니까?

성모님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천사의 알림과 율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맡길 수 있고 내어맡길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성모님의 이러한 고백이 하느님께는 참된 믿음을 드리고 인간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든 가까이 되신 어느 할머니께서는 결혼하신 지 5년 만에 혼자되셔서 자녀 2명을 샴바느질로 키우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었지만 자녀들을 중학교까지 졸업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할 때 집주인과 이웃들은 욕을 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자녀들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까지 시켰습니다. 졸업 후 자녀들을 대학에 보낸다고 하니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다고 하고 집주인은 그럴 돈이 있으면 나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욕과 멸시,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할머니께서 힘을 내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존경과 박수를 보내며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의 집주인과 이웃들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까지 보내시는 할머니의 삶을 보고 욕을 하고 미쳤다고 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보내실 수 있었던 힘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맡길 수 있고 내어맡길 수밖에 없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절실한 믿음, 즉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어느 할머니의 억척스러운 삶에서 이루어진 참된 믿음 안에서 볼 때,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고 내어맡길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준비하시며 성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말씀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 (루카 1,31 참조)

제1독서 : 2사무 7,1-5,8ㄷ-12,14ㄱ,16 제2독서 : 로마 16,25-27 복음 : 루카 1,26-38.

교구 100주년을 되돌아보며

문화홍보실

어느덧 교구 100주년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100년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도 벌이고 기도와 봉헌도 많이 드렸지만, 오히려 새롭게 받은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진 교구 100주년 기념 경축대회는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보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3만여 교구민이 운집해 경축대회의 절정을 이룬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는 이 교구를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다채롭고 풍성했지만, 100주년의 정신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신앙 실천 운동들도 뜻 깊은 것이었습니다. ‘은총의 100주년 1.3운동’, ‘도보성지순례’, ‘성모당 순례미사’ 그리고 ‘은총의 100년, 감사의 100일기도’, 그리고 ‘생명사랑나눔운동’ 등을 통해 우리는 천주교 신자다운 생활을 익히고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지난 100년간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00주년의 해는 저물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원년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구가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한 세 가지 사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교구 100년사와 두 번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제2차 교구 시노드, 그리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100주년 기념 대성당은 모든 교우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와 희생을 바치지 않는다면 뜻을 잃고 맙니다. 또한 우리가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 때에 주님께 바친 다짐도 실천해야 합니다. 교구 원년에 드망즈 주교님께서 바치신 허원을 채우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간을 주재하시는 하느님께는 100년도 지나간 어제에 불과합니다. 이제껏 우리를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새로운 100년의 여정도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 앞에 열어 주시는 주님께 다가오는 101년째의 한 해를 바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미사

대림 제4주일

입당성가

92 구세주 내 주 천주여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파견성가

88 임하소서 구세주여

영성의향기

:: 진정한 만남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 하며,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말 씀처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거들 짝을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도록 마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살면서도 때로 외롭다고 느끼고 진실한 만남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산업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 세상 풍속이 변한 데에도 탓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사람을 만나는 일에 소홀하여 정성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한 만남은 흔치 않습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식당에서 밥상에 같이 앉았다고 해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상대방을 아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외모를 알고 집안을 알고 학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소원, 경험과 동경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느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면 서로 마음을 열고 상대를 경계하는 무장을 풀어서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보고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번뇌에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교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교부들의지혜

하느님을 뵙는 은혜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하느님을 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에게 당신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옛적에 당신의 영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 주셨고, 이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들에게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보여 주시며, 장차는 하늘 나라에서 아버지로서 보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아드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주시며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뵙는 이들에게 불사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 성 이레네오 주교의 <이단자를 거슬러>에서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2.22(목)은 故 서정덕(알렉산델) 주교 10주기입니다.

KBS1 성탄특집 다큐 "두봉 주교의 삶"

12월 25일(일) 오전 8:10~9:00

MBC 창사50주년 기념 생방송 '비보 나눔 대축제'

12월 22일(목) 오후 5:00~7:45

모임/행사

가톨릭전례꽃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2.19(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 연구회

가톨릭마음인회 '빛' 모임

일시: 12.26(월) 20:30, 요안나미용학원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성소/피정

마리아 영성피정(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12.21(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예수성심시녀회 전례피정

성탄의 밤 전례: 12.24(토)~25(일)

송년새해 피정: 12.31(토)~1.1(일)

대상: 미혼 여성(신청: 40명)

신청 및 문의: (010)2649-2045

분도명상의 집 12월 시편 영성피정

일시: 12.30(금) 16:00~1.1(일) 13:00까지

준비물: 성경책, 미사책, 산책신발

지도: 정학근(모세) 신부, 피정비: 9만 원

(전 대구가톨릭대학 성서학교수, 새성경번역위원)

문의: (051)582-4573 / (010)6650-4574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겨울피정

함께: 12.30(금)~1.1(일) 35세 이하 미혼 여성

개인: 1.9(월)~1.1(수) 13(금)~15(일) 35세 이하 미혼 여성

장소: 흥천기도의 집(2만 원)

내용: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문의: 이 리디아 수녀, (010)2570-0939

콘벤투알프란치스코회 성소피정

일시: 2012.1.13(금)~15(일)

장소: 서울 한남동 수도원 피정의 집

대상: 예비 고2 부터 30세 이하 미혼 남성

준비물: 묵주, 미사도구, 여벌 옷

문의: (010)5064-7467(참가비: 3만5천 원)

교육/모집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성악 전공반 모집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2012년도 산 자연학교 초·중등 신입생 모집

생태영성으로 아이들의 사회적 소통과

스토리텔링,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연체험중심의 대안학교를 희망합니다.

교장: 정홍규 신부

문의: (054)338-0530(www.sanschool.org)

제11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1차 2012.1.1(일)출발 8주, 12주

2차 2012.2.26(일)출발 8주, 12주

3차 2012.3.25(일)출발 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제4기 성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기간: 2012.1.5(목)~11(수)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어르신 성경공부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지도자 교육

일시: 2012.1.13(금)~2.17(금) 13:00~17:50 (6주간)

장소: 대구 바오로딸 2층 교육실

회비: 13만 원(국민 80267-95-100667 재 성바오로)

신청: 대구 바오로딸, 425-5185 / (010)7449-1117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에니그램(7회기)

일시: 2012.1.3(화) 10:00~12:00

대상: 관계부도교육(8회기)

일시: 2012.1.4(수) 10:00~12:30

장소: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문의: 794-6022 / (010)3513-2225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교육과학기술부 '잘가르치는대학' (ACE) 선정 (2010~201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선정 (2010/2011)

2010/2011년 연속대구·경북 5개 대학대학중 취업율 1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나군, 다군) 안내

원서접수: 12.23(금)~28(수)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모집

일시: 12.22(목)~27(화)

회화과, 환경조각과, 시각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문화예술콘텐츠과

인터넷접수: www.uway.com

www.iccu.ac.kr

직원채용

(복)테라소비센터 직원 모집

근무처: 관리부 여직원 0명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력서 1부

문의: 테라소비센터, 765-1500

안 내

2012년 교구 주소록 광고 접수

기간: 12.19(월)~23(금)

신청: 선착순 온라인 접수

www.daeguajubo.or.kr

문의: 문화홍보실, 250-3074

201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제출서류: 사업지등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문안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회 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료: 7면 13만원, 8면 15만원

문의: 문화홍보실, 250-3052

1월 첫 주일이 신정인 관계로, 최봉도 신부님의
희망기도피정이 2월 첫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포항지역 군중후원회미사	12월 19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2대교구 교정사목후원회	12월 19일(월)	
한티 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9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2월 19일(월) 오전 11시	경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2월 20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이원 의료기

혈압계·혈당계·휠체어·인마기
뜸·부항기·찜질기·체온계

글루코사민·오메가3·칼슘

변산밤(도미니코), 김인숙(이리나)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0-2512(대표), 2513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 원장: 정승우 (요 세)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면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차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서정의 피부과

피부 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위치: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의(카타라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3대를 전통과 신도불이를 고집하는 기업

(주)약령시 사람들

"경육과 다양한 제품류"

● 노인성질환, 생약(가인미, 수향생,

갱년기 여성, 교우님 특별 우대)

웰빙건강식품, 각종 선물류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 428-8002, 011-528-8008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한 시원한 학문외과

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아우구스 티노)

치질·변비, 소아변비·변실금, 위·대장내시경

여성전용 입원실·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s.com

신경대우아파트 북현오거리

신신교 일대세육관

예금과 대출은

● 신속하고 간편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실(마리아)